

김 남 용
 필탄목장

'89년도 한·육·수산업의 전망

1. 한우는 우리의 문화다.

우리의 것을 찾자는 운동이 전국 도처에서 대대적으로 일고 있다.

즉 연중 계속하여 민속놀이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며, 고물, 낡은 것이라고 하여 창고구석 또는 헛간에 덩굴던 가재도구가 안방과 전시장으로 옮겨져 애지중지 온 가축과 문화재 애호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 모두가 그간 버려졌던 우리의 것, 우리의 얼을 찾자는 흐름에 따라 가보, 보물, 국보와 문화재로서 재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한우는 우리나라의 “소”이다. 한우가 현재까지는 그 수가 많았었고 더욱이 80년대 초에는 한우의 숫자가 처치곤란 할 정도가 되어 한우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한하였던 도축체중, 연령제한 등을 철폐하였었고, 이 결과 한우의 암소도축이 성행하여 암소의 도축비율이 최고시 50%선을 훨씬 넘는 적도 있었다.

현재는 암소도축을 자제하여 줄 것을 중용하고 있으나 고삐가 풀린 암소도축은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한우의 감소는 가속되고 있다.

우리의 소 한우,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의 소이며, 또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하며 내려 온 소인 것이다. 소 파동이 일기 몇년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 농촌 어느 곳에서나 한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다. 농번기에는 한우가 부지런히 움직여 밭과 논을 갈고, 농산물과 구비등을 운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농한기에는 농가 울옆에서 한가히 되새김질을 하고 있음은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평화한 농촌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농촌에 연고가 있는 많은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이 한우의 혜택을 받았

농촌출신 학생들에게는 이 한우가 학비조달원이 되었고 농촌에서의 농비를 비롯한 길항사 비용도 이 한우가 조달원이 되었다.



다. 농촌출신 학생들에게는 이 한우가 학비조달원이 되었고 농촌에서의 농비를 비롯한 길항사 비용도 이 한우가 조달원이 되었다. 금비가 없던 시대에는 한우의 구비가 농토를 비옥하게 하여 식량증산에도 큰 몫을 하였다.

살아서는 이와같이 인간에게 크게 기여를 하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를 남겼던 것이다.

이와같은 한우가 이제 농촌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농기계에 밀려 한우는 역용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잃었으며 쇠고기 생산을 위한 역할도 외국산 소와 쇠고기의 마구잡이 수입으로 소 파동을 겪으면서 많이 잃었고, 이에 대한 대책없이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있어 농민들의 소사육 의욕이 저하되고, 한우 두수는 더욱 감소하고 쇠고기 자급도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구상에서 동식물의 품종이 멸종되듯 한우가 멸종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농촌에 부를 안겨 준 한우, 한우는 우리의 얼이요 문화다.

2. 소 값 보도는 한우 감소를 촉진하고 있다.

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 보도가 농민들 귀에 좋게 들리건 또는 나쁘게 들리건 간에 농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들이다.

계속되는 보도는 농민들의 신경을 자극시키고 있다. 보도에 농민들은 불리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 가하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소를 기르고 있는 농민들은 조바심을 일으켜 소가 크기도 전에 출

하를 한다던가 가임암소도 새끼생산의욕을 잃고 더 불리한 상태가 오기 전에 처분한다고 서둘러 처분을 하기도 한다. 농민들의 피해의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체험에서 쌓이고 쌓인 것이다. 불신과 피해의식 이것은 위정자에게 그 책임이 크다. 농민을 위한다고 하고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보도를 하게 되면 먹을 것을 보고 까마귀떼가 모여들듯이 농민 아닌자들이 모여들어 농민몹을 가로채가곤 하였던 것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농정도 깊이 파고들어서 헤쳐 보라,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이 진실로 농민을 위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농민 주위에서 맴도는 자들의 차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떠들석하고 소리가 크면 클수록 까마귀떼가 들끓게 된다. 좋은 보도건 아니건간에 보도는 농민들에게는 피해의식을 부채질 하게 된다.

3. 한우의 감소는 필연적이다.

한우 사육 농가와 한우의 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는 감소하면서 호당 사육 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우농가의 감소중 1~4두 사육농가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즉 1~4두 사육농가가 주로 한우 번식농가인데 이들 번식농가의 감소는 한우 두수의 감소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5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일지라도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육을 위함하므로 2세이상의 가임암소 두 수중 상당 수는 번식에 이용되지 못하고 비육도축되고 있으므로 한우의 감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암소 도축율이 40%선을 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이 번식을 시키지 않고 비육시켜 도축함으로

서 오는 수치인 것이다. 흑자는 소 값이 상승하였으므로 번식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송아지 값으로 번식의욕을 갖지 않는것이 현 농촌의 실정이다. 국민소득 4천불론이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농민들도, 소를 번식시키는 양축가도 국민소득선인 4천불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현재의 소 값으로 4천불의 소득이 되겠는가. 송아지 입식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종용하고 있다. 송아지 입식을 다투어 시킬 때 송아지 부족현상이 일때 번식의욕이 되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입식을 저지하고 있으므로 송아지 생산은 더욱 저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우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축산관측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도 88년9월 현재의 한육의 두 수 169만8천두가 금년 3월 153만두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었고, 봄에 송아지 분만으로 금년 6월에는 3월보다 6만두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소는 계속 감소하게 된다.

젖소도 지난 연말 원유대의 인상이 된다는 부푼 희망에 의하여 젖소가격이 송아지 및 큰소 공히 상승하였었고, 더욱이 젖소 암송아지가 숫소 가격을 웃돌았었으나 신년 들어서면서 원유대 인상이 안되고 있으므로 젖소가격이 또다시 떨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생각은 “소 산업은 희망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손을 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 번식열이 감소하고 있다.

대학교의 지원자들을 분석하여 보면, 축산관계 학과가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점수대가 제일 낮지 않은가. 축산관계 지망생은 과거와 같이 축산을 희망해서가 아니고 점수대가 제일 낮으므로 점수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망하는 학과로 몰락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상태니 현재 소를 기르고 있는 농민들도 어떻게 소 기르는 생업에 만족하여 최선을 다하겠는가. 시작한 것이고 현재 하고 있으니 할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소 두 수가 증가 할 수 있겠는가.

4. 금년이 소 산업의 가름길

한육우의 감소가 소 값 상승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 값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책이 없었다. 수차에 걸쳐서 소 값 상승 유도를 위한 대책을 강구도 하였으나 효과없는 것이 되곤하였다. 그러는 중에 농민들은 파산하고 또 부채가 누적되었다.

소 값이 상승, 제값을 받게 되었을 때는 많은 농민들 손에서 소가 떠나간 후였다. 그러므로 소 값 폭락으로 진 부채는 소 값이 상승되었어도 줄어들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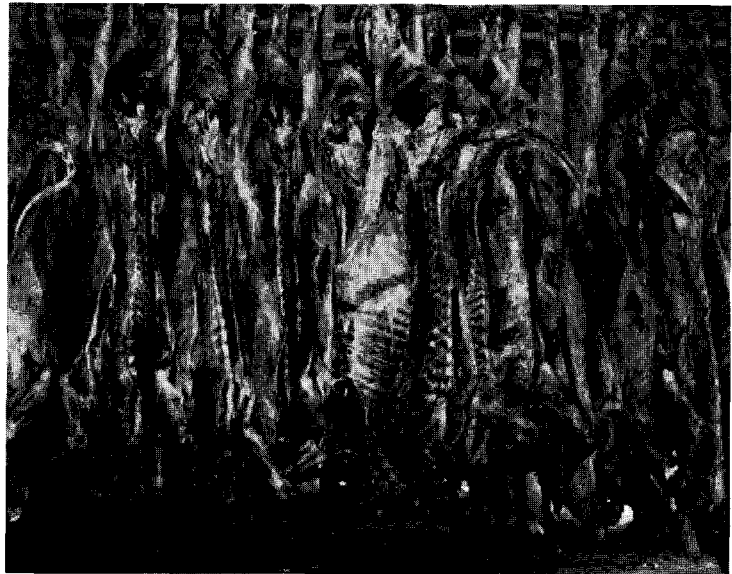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즉 “파동”에 농민들은 약한 것이다. 파동의 반복으로 소는 농민 손을 떠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 한우를 보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소 값이 원상복귀되니 이제는 값이 올랐다고 하여 쇠고기가 마구잡이로 수입되고 있다. 고급쇠고기가 일반육으로, 그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갈비, 족, 꼬리 등 닥치는대로 수입되고 있다. 또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어 수입쇠고기가 한우육으로 둔갑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품질 좋은 수입고기를 많이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수년 전의 모순된 광고를 재개하고 있다. 그것도 쇠고기 수입으로 얻은 수익으로 공기관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뿐이다.

금년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한다고 정부에서 수

“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어 수입쇠고기가 한우육으로 둔갑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품질 좋은 수입고기를 많이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수년전의 모순된 광고를 재개하고 있다. 그것도 쇠고기 수입으로 얻은 수익으로 공기관에서 광고를 하고있으니 말문이 막힐뿐이다.



차의 발표가 있었다. “물가안정”은 곧 농축산물과 연결을 시키고 현재는 쇠소기가 마치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양 보도되고 있다.

또다시 소 파동을 일으켜 그나마 남아 있는 한우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낼려는 것인지, 정부의 “소”산업에 대한 대책 여하가 우리나라의 소산업의 존폐를 가름하게 된다.

소비자를 도의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농민을 위한 농정, 양축가를 위한 축산정책이 아쉬운 해이다. 지난 해는 많은 양축가들이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거리로 뛰쳐나와 목이 터지도록 울부짚었다. 그러나 그 울부짚음은 메아리치지 않았다.

심지어는 울부짚음을 비웃듯이 중단되었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였고, 그 수량도 야금 야금 증가시키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 기호 운운하면서 지육으로 수입하겠다고 한다. 이 모두가 양축가의 의욕저하를 불러 일으켜 한우의 번식의욕을 저하시키고 조기출하를 유도하여 한우의 감소를 촉진하고 있다.

양축가를 위한 정책, 쇠고기 자급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아쉽다.

5. 한우의 값은 시장기능에 맡겨라.

한우 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한우 가격은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한우는 정부에서 주장하듯 높은 값인데도 그 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감소는 농민들에게는 번식의욕을 고취할만한 만족할 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이다.

소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서둘러가는 우리나라의 한우우 기반을 붕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한우는 정부에서 주장하듯 높은 값인데도 그 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감소는 농민들에게는 번식의욕을 고취할만한 만족할 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이다.



현재 농촌에는 부업꺼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축산에 있어서도 양계, 양돈은 이미 농민손에서 떠났다고 할 수 있다. 혹자가 말하기를 현 상황에서 산란 양계를 새로 하자면 현금 5억원은 가져야 한다고 한다. 농민들에게는 생각도 못할 거금이 소요된다. 소도 농민 손에서 많이 떠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농민 손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 물량과 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무리를 계속한다면 파동에 약한 농민들은 한육우를 계속 사육치 못하게 된다.

현재 물의가 되고 있는 고추도 농촌에 부업의 종류가 극히 제한되어 너도 나도 고추 재배로 평년작을 웃돌면 잉여현상으로 연결되어 값이 폭락하여 문제가 되곤한다. 부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한육우 마저 앓아버린다면 농촌의 사회문제는 고추문제 이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난해의 쇠고기 반대 결의대회를 돌이켜 보자. 유세장에 동원하듯 권유에 의하여 일당을 받고 돈벌이로 모여든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양축가 스스로가 각가지 방해도 불구하고 한두번도 아닌 수차례 걸쳐 모여들지 않던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증식의욕이 되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잉여시 속수무책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준 정부가 부족시 수입으로 또다시 농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는 자국 농민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을 가중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미국 정부는 고기를 빼서먹고자 하는 이리떼같은 행동에 우리 정부는 이리는 되지 못하더라도 짐을 충실히 지켜주는 충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6. 89'년도의 소산업의 전망은 밝다.

89'년도의 한육우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물론 전제가 따른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한육우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의 외국인 쇠고기의 수입이 전제다.

지난 수년간 농민들의 부채를 배가 시켰던 소파동도 정부의 부분별한 생축과 쇠고기의 수입에 의하여던 쓰라린 경험을 정부에서는 잊어서는 안된다. 앞에서 말하였지만 한육우의 두수는 계속 감소하게 되며 쇠고기의 수입은 국민소득의 향상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게 된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증식의욕이 되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잉여시 속수무책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준 정부가 부족시 수입으로 또다시 농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한육우산업에 정부가 관여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한육우 산업의 기반은 붕괴된다.

7. 결 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우가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한 반도를 지키며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의 문화를 찾자는 운동이 전국 도처에서 일고 있다. 우리 한우도 이런 맥락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또 농민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주고 부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도 한우가 농민손에 머물러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양축가들의 외침을 귀담아들어서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준다면 한우의 산업은 아직까지는 전망이 밝게 농촌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리떼와도 같이 덤비는 미국 농민과 정부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농민 보호를 위하여 이리떼와 같이 덤벼들지는 못하더라도 충견과 같이 농민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